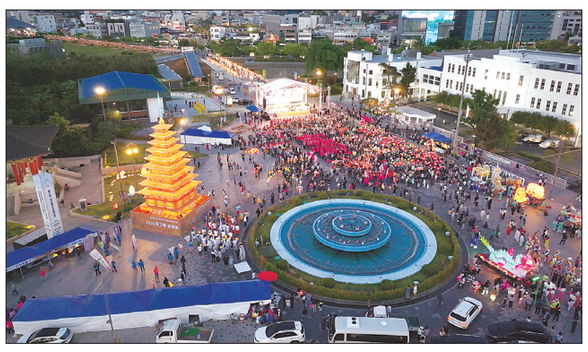
전국 연등 물결…“화합·상생 발원”

지역 불교단체들 연등문화축제 개최 잇달아

홍승도 · 양행선 · 조동제 · 김선행 · 이동격 지사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연등문화축제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빛고을 관등회, 수원 연등회 현장.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문화축제가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5월 9일 5·18민주광장에서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2026 빛고을 관등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오후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관등법회, 연등행진, 대동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중생의 고통을 비추는 자비의 등불”이라며 “작은 발원과 실천이 모여 화합과 상생의 길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등법회와 점등의식 이후 진행된 연등행진에는 운전불자회를 선두로 광산농악과 취타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의 여래공심불, 각 사찰 장엄등, 정광중·고등학교 학생과 불교단체 회원 등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형형색색의 전통등을 들고 가족과 지역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며 도심을 행진했다.

구례불교연합회(회장 우석 스님)는 5월 10일 화엄사 입구 냉천삼거리 광장에서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불교의례, 화엄사연합합창단 축가, 후원금품 전달, 인사말과 축사, 발원문 낭독, 점등, 탑돌이,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회장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와 이웃을 비롯한 세상의 만생명이 하나 되는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스님)는 5월 9일 군산 수송체육공원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상생과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등을 밝히는 이유는 인류 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군산 시민과 함께 진리와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천지동근 일체만물, 즉 하늘과 땅의 뿌리가 같고 세상 만물은 하나라는 불가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체가 서로 상생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경산 연등문화축제가 5월 9일 경산실내체육관 온마루광장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경산불교총연합회(회장 선웅 스님)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 표어 아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전국 곳곳에 퍼지기를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합회장 선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세상을 밝히는 연등문화 축제를 열고 점등식을 하는 이유는 어둠을 밝힌 연등 공덕이 온 세상에 회향돼 모든 중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은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의 실천,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의 통찰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라고 설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점등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불·법·승’을 외치며 대형 장엄등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발원했다.

수원시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수진 스님)는 5월 9일 수원행궁 일원에서 열린 ‘수원 연등회’를 열고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날 연등회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수원사암연합회 고문 월장 스님은 봉축사에서 “연등의 불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자비와 화합의 빛”이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축사를 통해 “연등의 빛은 시민 모두의 희망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한다”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불교봉축위원회(회장 해공 스님)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원주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제56회 전통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하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10일 봉행된 봉축법요식에서 원주불교사암연합회 고문 현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이라며 “본래의 자신을 돌아보며 탐욕과 분노를 없애고 하나가 되자”고 당부했다.

봉축위원장 해공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깨달음과 동체대비 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춘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월중 스님)는 5월 9일 춘천 소양로 칠층석탑 역사문화공원에서 ‘불기 2570년 봉축점등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불교계와 기관단체장, 시민 등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해 봉축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청평사 회주 도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어야 한다”며 “이 등불로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오실 것”이라고 설했다.

연합회장 월중 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은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겠다는 간절한 서원”이라며 “이 서원으로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경봉찬기도회, ‘오대천 살리기’ 나섰다

5월 9일 금강연서 방생법회



월정사 신행 결사체인 금강경봉찬기도회가 한강 발원지인 금강연에서 생명 살림과 생태 복원을 위한 대규모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금강경봉찬기도회는 5월 9일 한강 시원지 금강연에서 ‘금강연 수륙방생 대법회’를 열고 오대천 생태 복원을 발원했다. 이날 금강연 방생에서는 금강모치와 꺽지, 돌고기, 미유기, 새코미꾸리, 참갈겨니, 퉁가리, 가는돌고기, 대륙종개, 쉬리 등 2만여 마리의 토종 어류가 방류됐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온 세상의 자비심을 본래의 자리로 돌리는 것, 모든 생명이 하나의 빛으로 연결돼 함께 빛나는 것이 곧 방생”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석 강원대 교수는 ‘오대천 열목어 개체수 증가에 대한 경과보고’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월정사 스님들의 노력과 금강경봉찬기도회의 지속적인 오대천 살리기 활동이 현재의 복원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동화사 ‘성불놀이터’로 어린이법회 170명 입회

5월 3~5일,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 진행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5월 3일부터 5일까지 경내에서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체험형 프로그램 ‘성불놀이터’가 큰 호응 속에 성료했다.

동화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익힐 수 있도록 ‘성불놀이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2박 3일 동안 3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70명이 동화사 어린이법회 입회 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동화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수행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포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선운사, 35보병사단 장병 수계·점등법회

5월 9일 호국 충경사서 봉행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5월 9일 제35보병사단(사단장 김광석 소장) 호국 충경사에서 장병 수계식과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을 비롯해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 김광석 사단장, 박종철 금강회장(신병교육대대장), 군승 법현 스님과 장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계사로 나선 경우 스님은 “계는 스스로를 지키는 든든한 갑옷과 같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군 생활 속에서 참된 용기를 길러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반야산 관 촉 사



충남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전화 041)736-5700 종무소 010-7460-5007